


- 『더 좋은 일자리, 함께 만드는 인천』 -

인천시 「일자리 청년 · 창업분과위원회」  
제5차 회의 결과

all ways INCHEON  
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

 인천광역시  
(일자리경제과)

## 「일자리 청년·창업분과위원회」 제5차 회의 결과보고

### 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19.10.7.(월) 15:00~16:50 / 미추홀타워 2층 회의실
- (참석위원) 위원 7명 참석 ※ 안건 관련 부서장 배석
- (주요내용) 분과위원회 의제 세부 논의

- 인천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'지원대상' (일자리위원회 상정안건)
- 초기 창업자-창업준비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

### □ 주요 논의 내용

#### 【1】 초기 창업자-창업준비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

- (제안 배경) 1~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 공유 가능(김○○ 부위원장)
  - 창업의 패업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창업 성과도출을 위해 제안
- (인력풀 구성)
  - 1~3년 미만 → '3년 또는 5년 이상'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 선배를 멘토로 구성하는 등 멘토의 자격 강화 필요(위원 박○○)
  - 인하대, 인천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기관의 pool을 활용하여 멘토, 멘티 매칭 가능(위원 임○○)
- (공간 활용) '창업카페', '스타트업파크' 활용 고민(위원 권○○, 박○○)
- (행사 내용)
  - 초기에는 官 주도로 추진, 이후에는 창업기업 스스로 네트워크를 통해 참가자 모집,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운영 주도(위원 임○○)
  - 서울 데모데이(스파크랩스 등)처럼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(위원 박○○)
  - 지속 가능한 '네이밍' 구축이 중요(위원 박○○, 임○○)

## 【2】 인천 청년 월세비용 지원대상 논의(일자리위원회 상정안건)

- 지원사업의 주 목적이 '복지(청년 전체)'차원인지 '일자리(취·창업자 대상)'차원인지 논의 필요
    -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천에 취·창업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, 대학생이더라도 취·창업을 해야지만 지원하는 방향(위원 김○○)
- ⇒ 일자리에 초점을 둔 '취·창업한 청년'으로 지원대상 보완

### □ 논의 결과

- (초기 창업자-예비 창업자와의 만남의 장) 인천지역만의 창업한마당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, 사업 발전 희망
- (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) 지원대상을 인천 거주 청년 전체가 아닌, 일자리 연계한 '취·창업한 청년'을 대상으로 지원 방향설정